

龜旨歌考

李 妍 淑*

目 次

- | | |
|------------------|---------------|
| I. 序 | 2) 龜旨歌의 분석에서 |
| II. 本 論 | (1) '喫'의 用字法 |
| 1. 龜旨歌의 삼입가요적 성격 | (2) 海歌와의 관련성 |
| 1) 다른 신화와의 비교 | 2. 龜旨歌의 장르문제 |
| (1) 樣式의 비교 | III. 結 |
| (2) 내용과 표현의 비교 | |

I. 序

駕洛國의 首露신화는 三國遺事 卷二의 끝 부분인 駕洛國記에 실려 있는데, 이 신화의 앞 부분에 “文廟朝大康年間(1075-1083)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라는 주가 붙어 있다. 이 주로 보아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유사 이전에 金官知州事이었던 어떤 문인¹⁾에 의해 大康年間に 쓰여진 가락국기를

* 동의대학교 교수

- 1) 김창룡님은 高麗史 列傳 卷三에 金官侯 王烝가 문종 31년(곧 大康 3년) 特進 檢校司空上柱國金官侯 식읍 일천호를 제수하였다는 기록으로 그 문인은 왕가 종실 친척이었던 王烝라고 하였다.(龜旨歌의 「何」·「也」論辨, 漢城大學 論文集, 1989, p. 67)

보고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여 삼국유사에 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의 誕降・即位・六伽耶의 성립・首都建設・新羅 脫解王과의 王位 篡奪 싸움・결혼・죽음・後世人들의 水露宗廟祭祀・水露廟의 영험 등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 수로왕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일생과가락국의 여러 사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수로왕의 탄강 내용 속에 들어 있는 龜旨歌는 신화 자체의 문맥의 연대를 그대로 따를 경우 고대 한국 가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신화가 후대에 문자로 정착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구지가가 처음부터 수로 신화 속에 삽입된 형태로 들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구지가의 성격은 물론 한국 고대시가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지가를 다른 신화들과 비교하면서 신화 자체의 樣式과 내용 분석, 그리고 구지가의 用字法과 三國遺事 卷二의 水路夫人條 속에 들어 있는 구지가와 유사한 海歌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구지가의 삽입가요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이 노래의 장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龜旨歌의 삽입가요적 성격

구지가에 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가락국신화와 구지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른 고대가요 작품에 비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黃溟江님이 “事實 說話에서 本歌를 分立시켜 考察한다는 것 自體가 妥當性을 이미 缺如하고 있는 것이다.”²⁾ 라고 논급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노래를 산문에 밀착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된 이 노래의 성격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논의되

2) 黃溟江, 龜旨歌攷, 국어국문학 29집, 국어국문학회, 1965, p. 33.

어저 왔다. 구지가에서 한국 서정시가의 역사적 원류 찾으려는 시도³⁾와 이 노래를 呪歌로 보면서 發生學的 측면에서도 해석하여 舞蹈歌·勞動謠로 본 설⁴⁾이 있으나, 대부분은 神君을 맞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呪術的 巫歌·神謠라고 하는 범위 내의 것⁵⁾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작품을 呪術的 巫歌·神謠·呪歌라고 보아 거의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蘇在英님과 黃湔江님은 龜totem적 측면에서 파악하였고, 徐廷範님과 李揆東님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논하였다. 발생학적 측면에서 崔東元님은 원시시대에 자기 집단의 무한한 생산력을 呪願한 蹈歌⁶⁾로, 邊德珍님은 海岸民族의 거북 乃至는 그 알의 狩獵採集의 豊富을 祈願하는 行事의 一種⁷⁾으로, 鄭炳昱님은 女性이 男性을 誘惑하는 하나의 手段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金承璨님은 龜卜歌로⁹⁾ 보았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구지가의 성격을 呪歌로 규정짓게 된 것은 이 노래를 어디까지나 신화와의 관계 하에서만 생각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드물게 이 노래를 삼입가요로 본 설도 없지는 않다. 즉, 金東旭님의, 駕洛國全篇을 서사시로 보고 龜旨峯迎神歌는 여기에 삼입된 일종의 呪詞¹⁰⁾라고 하는 견해와 金宅圭님의 전체 제의의 이야기 속에서 삼입가요로 될

3)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1), 울산어문논집 제3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4) 대표적인 주장자는 朴智弘님이다.(龜旨歌研究, 國語國文學 16號, 1957)

5) 朴智弘(위의 논문), 徐廷範(古典文學에 對한 精神分析學的의 試論, 現代文學 通卷 75號, 1961, 3), 黃湔江(알의 논문), 蘇在英(駕洛國記說話考, 고려대 語文論集 10輯, 1967), 尹五榮(龜旨歌新釋, 現代文學 通卷 151號, 1967, 7), 安秉台(龜旨歌의 研究, 友石大 아시아文化 1輯, 1970), 金基卓(駕洛國記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0), 李揆東(龜旨歌와 古代 祭儀의 聯關性, 鸞山 李殷相博士古稀記念論文集, 民族文化論叢, 1973), 金宅圭(回顧와 展望, 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化, 大邱 韓國語文學會, 1974) 그외 다수.

6) 崔東元, 駕洛國記攷, 金海地區 綜合學術調查報告書, 釜山大 韓日文化研究所, 1973, pp. 84-89.

7) 邊德珍, 龜旨曲에 對하여, 曉星女大 研究論文集 第6·7輯, 1970, p. 96.

8) 鄭炳昱, 韓國詩歌文學史 上, 韓國文化史大系 V, 고려대 民族文化研究所, 1967, p. 769.

9) 金承璨, 龜旨歌와 그 背景의 研究, 釜山大 論文集 第14輯, 1975, p. 38.

10) 金東旭, 鄉歌의 下位장르, 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4, p. 311.

가능성을 보이는 것¹¹⁾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설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삼입의 의미 자체도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의 것인지에 관해 명확하지 않다. 이에 필자는 이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구지가가 원래는 가락국 신화와 관계없이 독립되어 있던 동요였는데, 이것이 신화가 형성되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전해져 오던 신화가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는 단계에서 산문 중에 삼입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노래가 후대까지 불려진 독립가요이었다는 것을 신화 자체의 분석과 구지가의 분석을 통해 논해 보기로 한다.

1) 다른 신화와의 비교

(1) 樣式의 비교

연구자들이 구지를 神謠·呪歌·勞動謠와 같은 원시가요로 본 것은 가락국이 신화와 그 속의 구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노래를 신화에서 분리시켜 독립가로 보았을 때 과연 원시시대까지 그 발생시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시가요임을 증명할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짧은 민요형식과 주술적 성격이 그 근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주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신화 문맥 속에서의 것이고 신화에서 분리시켜 독립가로 보았을 때는 그와 같은 성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민요형식은 향가에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근래의 신생되는 민요에도 이어지고 있으므로¹²⁾ 짧은 형식만을 가지고 원시가요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구지가의 주술성이라는 것은 가락국 신화와 관련을 전제로 하여 말해지는 것인데 가락국 신화 속에 노래가 삼입되어 전해지는 형식은 삼국유사·삼국사기에 전하는 다른 신화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특이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운문 속에 산문이 삼입된 형태로 전해지는 설화와 문학작품들은 많이 보이지만 이것은 후대에 불교문학과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한

11) 金宅圭, 回顧와 展望, 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4, p. 293.

12) 20세기 이후 최근에까지 어느 시골의 기우제에 쓰인 “龍雨龍雨 龍雨龍龍 龍不雨龍龍 龍雨龍龍”(성기옥, 앞의 논문, p. 58 재인용) 라든가 각 시대에 따라 그 시대상, 문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생되는 민요가 많다.

국 고대 신화에 한정하여 이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락국 신화에는 후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즉,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고구려·백제·신라의 여러 신화는 삼국사기·삼국유사 이전의 古記·壇君記·珠林傳 등의 문헌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음을 삼국유사 찬자의 실증적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 단군신화 : 桓因 帝釋의 서자 桓熊이 태백산의 神壇樹에 내려왔다. 곰과 범이 같은 굴 속에 살면서 神熊에게 사람되기를 비니 쑥 한 십지와 마늘 20개를 주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곰은 37일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忍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이 檀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원하니 환인이 임신으로 변하여 혼인해 주어 단군을 낳았다.(卷第一 古朝鮮)
- 해모수신화 : 기원전 58년 4월 8일 天帝가 오룡거를 타고 홀승굴성에 내려 왔다.(上同 北夫餘)
- 금와왕신화 : 해부루가 늙어 아들이 없으므로 산천에 제사지내니 그의 탄 말이 곤연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돌을 들지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이가 있었다.(上同 東夫餘)
- 동명성왕신화 : 유화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에게 유인 당하여 정을 통하였다. 금와가 유화를 방 속에 가두니 햇빛이 따라와 임신하여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닳되들이만했다.(上同 高句麗)
- 혁거세왕신화 : 3월1일 6부 촌장이 알영 언덕에 올라 임금 찾을 것을 의논하다가 楊山 밑 蘿井을 보니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비치는데 말이 끓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보니 붉은 알(혹은 푸른알) 한 개가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니 사내아이가 나왔다.(上同 新羅始祖 赫居世王)
- 탈해신화 : 용성국의 舍達婆가 積女國의 왕녀를 맞아 祈子하였더니 7년 후 알 한 개를 낳았다.(上同 第四代 脫解王)
- 김알지신화 : 60년 8월4일 월성 始林에 큰 광명이 있고 자주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에 뻗었는데 구름 속에 황금궤가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궤에서 빛이 나고 흰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궤 속에 사내 아이가 있었다.(上同 金閼智)

삼국사기에는 혁거세신화와 주몽신화가 실려 있는데 삼국유사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화에는 전연 노래가 들어 있지 않으나 가락국 신화에만은 노래가 들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가락국이 이전에 수로신화에 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일까.

삼국사기·삼국유사 등의 자료로 보아 金官知州事의 기록 이외에 가락국 신화의 기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의 여러 사서에도 가락국에 관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南齊書·北史 등에 가락국의 정치적 대외관계에 관한 기사가 극히 간략하게 보일 뿐¹³⁾ 수로왕 신화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 卷一의 五伽耶條에서도 “가락국기의 찬을 살펴 보면 자주색 끈 한가닥이 내려와 여섯 개의 등근 알을 내려 주었는데… 한 개가 수로왕이 되고…”라고 하여 金官知州事의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락국이 이전에는 수로왕 신화가 문자로 정착되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의 앞부분에서도 김유신이 김수로의 후손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金庾信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望駕洛九村 遂至其地 開國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그러나 여기서도 김수로가 漢建武 18년에 가야국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속의 가락국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수로신화는 물론 수로에 관해서도 단순히 “不知何許人”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삼국사기 편찬시에 가락국기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古文獻에 구지가를 동반한 신화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널리 전승되어 있었다면, 또 가락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제의가 전해지고 있었다면 삼국통일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을 열전의 첫부분에 다룬 편찬자의 태도로 보아 당연히 그 신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지 않았을까? 이처럼 古記등의 고문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고구려·백제·신라의 시조신화에는 노래가 전연 삽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金官知州事의 가락국기 이외에는 그 이전의 어떠한 기록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는 가락국기에만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고신화는 고대의 산문의식과 운문의식이 미분리

13) 柳得恭의 二十一都懷古詩 중의 「금관」이라는 시의 序에도 보인다.(海東韻記, 靑鹿出版社, 1970, pp. 115-6)

된 상태에서 형성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비해 가락국기가 후대에 정착되었다면 당시에는 산문과 운문의식이 이미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던 때 이었는데다가 당시의 산문의 양식이 불교의 찬형식이나 중국문학의 영향 등으로 산문 속에 운문을 삽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가락국기를 기록한 金官知州事도 그렇게 한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자면 金官知州事가 가락국기를 문자로 기록하는 단계에서 삽입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혹은 일연이 가락국기를 삼국유사에 略載하여 정리할 때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압축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삽입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 든 이같은 양식은 구송 단계에서가 아니라 기록의 단계에서 성립된 것이라 보고 싶다.

(2) 내용과 표현의 비교

이처럼 가락국기에는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산문에 노래 구지가가 삽입되어 있어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그것은 다름아닌 불교적 색채와 한문 문식에 의한 것이다.

이 신화는 위에서 본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여러 신화 중에서 신라 시조인 혁거세 신화와 김알지 신화와 유사한데 특히 김알지 신화와는, 알이 들어 있는 금궤가 내려온 장소, 금궤에 들어 있는 것이 여섯 개의 알이 아니라 남자아이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똑같다. 그런데 수도 전설이나 결혼 부분에서 보면 다른 신화에 비해 불교와 한문학의 영향으로 인한 윤색의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후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던 고조선의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帝釋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 불교적인 성격이 보이기는 하나, 이것은 삼국유사 편찬시에 윤색된 것이라 보아지며 그 이외는 원시시대의 순수한 곰토텐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른 신화들도 후대에 가미되었으리라고 보아지는 내용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해 신앙을 반영하는 卵生 신화 등 고대의 원시적인 신화적 사유를 소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락국 신화는 불교적 윤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락국 신화를 그대로 따를 경우 구지가는 신의 託宣 속에 들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도록 신의 탁선이 있는 것은 後漢 世祖 光武帝의 建武18年 壬寅(42년) 3月 上巳日이다. 따라서 신이 말한 대로 구지가를 부른 것도 그때의 일로 되나, 수로 탄강 이야기의 바로 뒤에는 수로왕이 즉위하여 수도를 정할 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후대적 요소가 보인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二年癸卯春正月 王若曰 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新畚坪〔是古來閑田 新耕作故云也 畚乃俗文也〕四望山嶽 顧左右曰 此地狹小如蓼葉 然而秀異 可爲十六羅漢住地 何況自一成三 自三成七 七聖住地 固合于是 托上開疆 終然允臧歟 築置一千五百步周廻羅城 宮禁殿宇 及諸有司屋宇 虎庫倉庫之地 事訖還宮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新畚坪이라는 지명과 十六羅漢에 보이는 후대적이며, 불교적인 성격이다. 畚(畚)자가 만들리기는 수전이 어느 정도로 발달된 그 후기(7, 8세기)의 일이므로, 신답평이란 신라통일 이후에 생긴 이름¹⁴⁾이라는 것과 김수로가 수도를 정할 때(43)는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인데도,¹⁵⁾ 이곳은 十六羅漢과 七聖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여 불국토 형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許黃玉을 맞이하여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許黃玉이 불교국에서 온 왕녀로 묘사되어 있어 불교적인 색채가 강함은 이 부분이 아마도 기록되는 단계에서 윤색되었거나 아니면 새로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본다면 원래의 형태는 김알지 신화와 같은 아주 간략한 형식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서술이 체계적이고 수로에 관한 묘사도

14) 李載浩譯註, 삼국유사(1), 한국자유교육협회, 1973, pp. 299-300.

15) 가야불교의 초전을 48년이라고 추정된 설도 있으나(김용덕, 가야불교 설화의 연구, 韓國學論叢 第21, 22合輯, 한양대학교, 1992, p. 224), 洪潤植님은 초기불교의 전래 시기를 167년-184년을 전후한 2세기 후반으로 보고, 사회적 수용을 한 시기는 452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伽倻佛教에 대한 諸問題와 그 史的 位置, 伽倻考古學論叢 1, 부산대학교 伽倻文化研究所, 1992, p. 251)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과 같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눈썹이 팔채임은 당나라 요임금과 같다”고 하여 唐高祖까지 언급하고 있음은 이 내용의 정리된 단계가 후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로신화가 몇 단계에 걸쳐서 형성되었는지, 한국 신화에 있어서 卵神에 의한 降誕의 원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구지가는 언제부터 불리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가락국기의 수로신화는 신라의 혁거세 신화, 알지 신화에 보이는 卵生 신화를 차용하고 불교적인 색채를 농후히 첨가하여 윤색하고 한문학적 문식을 더하여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진다. 이렇게 보면 구지가는 역시 수로신화와 처음부터 결합되어 전해졌던 것이 아니고 가락국기가 기록된 단계에서 이 신화에 삽입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신화의 내용면에서 보면 모습을 감추고 九千에게 구지가를 부르도록 명령을 한 것은 결국 수로임을 알 수 있는데 신 자신의 탁선에 들어 있는 구지가의 원형적 성격, 노래가 신으로부터의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노래가 들어 있는 신화의 대화 부분은 이 신화가 정리되어 기록될 때 삽입된 것이라 보아진다.

2) 龜旨歌의 분석에서

(1) ‘喫’의 用字法

다음으로 구지가의 독립가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노래에 사용되어 있는 ‘喫’의 용자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이 노래 第四行의 “燐灼而喫也”에는 ‘喫’字가 사용되어 있어 가락국기가 기록된 시대에도 불리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형식으로 보면 詩經의 시형과 비슷하여 그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언어 사용면에서 보면 원시시대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詩經에 ‘燐灼’의 用例는 있지만 ‘먹는다’라는 의미에 ‘喫’자를 사용한 예는 없다.

그러면 삼국유사에 나타난 ‘먹는다’는 뜻의 ‘食·喫’字의 用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一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卷一 古朝鮮)
2.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生一卵 大五升許 王棄之與犬猪 皆不食(上同 高句麗)
3.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減食令瘦 驚者善養令肥 王自乘肥者 瘦者給蒙(上同)
4. 五月泗沘 岸大魚出死 長三丈 人食之者皆死(上同 太宗春秋公)
5. 入網捕掠燔之喫(三國遺事 卷二 水路夫人)
6. 沙彌妙正 每洗鉢於金光井邊 有一龜浮沈井中 沙彌每以殘食 餽而爲戲(上同 元聖大王)
7. 我是西海若 每一沙彌 日出之時 從天而降 誦陀羅尼 三繞此池 我之夫婦子孫 皆浮水上 沙彌取吾子孫肝腸食之盡矣 唯存吾夫婦與一女爾(上同 眞聖女大王 居陀知)
8. 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飲 耕田而食(上同 駕洛國記)
9. 此中更有戲樂思慕之事 每以七月二十九日 土人吏卒 陟乘帖設帷幕 酒食 歡呼 而東西送目(上同)
10. 交相來往 棲神安養 方外之志 未賞暫廢 觀身世無常 因相謂曰 腹田美歲 良利也 不如衣食之應念而至 自然得飽煖也(上同 卷三 南白月二聖 努勝夫得怛怛朴朴)
11. 遂拂衣而行 公大慙 視其所食 盤中鮮戴不減 公甚異之 歸奏於朝(上同 卷四 二惠同塵)
12. 事聞 上許令出家 乃深隱岩叢 糧粒不恤 時有異禽 含菓來供 就手而食(上同 慈藏定律)
13. 俄於高城海邊 有無數魚類 自死而出 人民賣此爲食得免死(上同 關東楓岳鉢淵戴石記)
14. 乃以瓦盆爲釜 熟食而養之(上同 卷五 眞定師孝善雙美)
15. 家窶不能生育 因役傭於貨殖福安家 其家俵田數畝 以備衣食之資(上同 卷五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16.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以圖母腸之盈(上同 孫順埋兒 興德王代)

위의 기록들에서 보면 ‘먹는다’는 뜻에는 모두 ‘食’字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지가와 거의 똑같은 海歌에서만은 “入網捕掠燔之喫”이라고 하여 ‘喫’字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喫’字는 속어로 사용되었으며 이 글자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宋代에 이르러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삼국유사의 이같은 ‘食·喫’字의 용례로

보아 ‘喫’字는 구전되던 민간의 노래를 문자화하는 단계에서 노래의 그러한 특성을 살려 속어적 의미로 표기하였던 것이라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가락국신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이미 문자로 정착이 되어 있었다면 신화와 결합되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노래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속어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喫’자를 구태여 ‘食’자 대신에 사용했을 리가 없겠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중에서도 드문 이 글자가 내용 성격면에서 유사한 구지와와 해가에만 유독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 것은 이 노래가 당시에 불리어지고 있던 독립가요임을 내보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海歌와의 관련성

또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구지가가 독립가요임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즉 삼국유사 卷二 水路夫人條의 후반부에 들어 있는 해가가 구지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성덕여왕 때의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7언4행의 한시이다.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傍逆不出獻 入網捕掠鱸之喫

그러나 산문 중의 “宜進界內民 作歌唱只”와 “衆人唱海歌”로 미루어 보면 불리어졌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이 노래는 기본적 발상, 전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을 위혁하는 점 등의 공통점으로 보아 구지와와 동체의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연구자들은 원시시대의 구지가가 신라시대에 수로부인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로부인을 납치한 것이 용인데 노래에서 “龜乎龜乎”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 金烈圭님은 龍과 龜는 모두 月動物이므로 대치되는 예가 있다¹⁶⁾고 설명하였으며, 邊德珍님은 신라시대의 ‘海, 龜, 龍’의 음운형태의 유사로 해석¹⁷⁾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노래에도 ‘喫’자가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성덕왕 때인 8세기 무렵에 산

16) 金烈圭, 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徵研究, 亞細亞研究 22號, 고려대학교, 1967, pp. 98-9.

17) 邊德珍, 앞의 논문, pp. 112-3.

문이 보이는 것과 같은 장소에서 불렀던 노래라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역시 이야기가 기록될 때 독립가가 한편에서는 가락국신화에, 또 한편에서는 가락국 왕의 수로의 이름과 수로부인의 이름이 같은 음이므로 이에 이끌려 수로부인의 이야기에 삽입되었던 것이라 보아진다.

이상과 같이 구지가를 독립가로 생각할 때 신화와 노래와의 관계는 보다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이 노래는 독립가로서는 문자 그대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올래

라는 내용으로 거북이 머리를 껍질 속에 넣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머리를 내게 하려고 거북을 이리저리 만지기도 하면서 부른 동요¹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위에서 논한 것처럼 가락국신화와 결합되게 된 동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는 ‘龜’로 인해서이다. 가락국기에서 수로탄강을 이야기 하면서 신의 탁선이 있는 곳은 구지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에 “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狀故云也”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산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점이 이 노래를 신화 속에 삽입가능케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북은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신성성을 지닌 동물로 사유되어 왔는데 그러한 거북을 이름으로 한 구지봉의 신성성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頭’의 뜻이다. 독립가에서는 껍질 속에 들어 있는 거북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頭’는 首長의 뜻과도 상통하므로 신화에서는 거북이 껍질 속에서 머리를 내는 것처럼 龜旨峯이 탄강하는 수로왕을 맞는다는 의미로 무리없이 전환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제4행의 “燔灼而喫也”가 지니는 성격 문제이다. 이것은 신화가 결합된 구지가 속에서는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으나 이점 역시 독립가가 삽입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즉 “네가 머리를 내지

18) 成賢慶님도 日本의 童歌 가운데 “거북아 거북아 모래 속에 숨은 거북아 넌 언제 목을 내밀래.”라는 노래가 있음을 인용하고 있다.(龜旨歌 小考, 駱山語文 第二集, 서울대 문리대, 1970, p. 18에서 재인용)

않으면 구워서 먹어 버리겠다”고 거북을 위협하면서 불리어진 이 독립가의 성격은 呪歌의 위력적 요소와도 공통되므로 신을 위협하는 呪歌로 전이되어 그대로 가락국 신화에도 결합되게 된 것이라 보아진다.

동요인 독립가가 가락국 신화에 결합됨으로써 노래의 성격은 수로왕을 탄강시키는 집단적 呪歌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고대가요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보면 “掘峯頂撮土”는 거북의 모양을 한 산봉우리를 파고 거북의 머리를 내게 하는 모의 동작을 함으로써 그 신성한 산에서 왕을 맞을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¹⁹⁾에서 비롯된 동작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金合子 속의 여섯 개의 알도 거북이 한꺼번에 5, 6개의 알을 낳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락국기에도 “國稱大駕洛 又稱伽倻國 即六伽倻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六伽倻聯盟體가 확립되고 나서 한국의 고대의 알사상과 결합된 육가야의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지가는 처음부터 가락신화에 결합되어서 전해진 원시가요가 아니고 그 노래가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독립가요가 신화에 결부되고 또 여러 요소가 첨가되어 문자로 기록되는 단계에서 독립가가 몇 가지의 성격에 의해 가락국 수로왕 탄강신화에 결합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2. 龜旨歌의 장르문제

이번에는 구지가의 표기와 시형식으로 볼 때 이것이 한시가 아님을 논술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을 한시로 본 견해²⁰⁾도 있지만 한자의 음훈차용 표기법에 의한 것²¹⁾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19) 崔性圭님은 인간미담의 높은 산 정상에 뿔려 있는 산 구멍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고대중국의 자연 숭배 신앙에 영향받았던 한민족의 산수창생(山岫創生)민속신앙으로 설명하였다.(日本王家의 뿌리는 伽倻王族, 釜山日報社・을 지서적, 1993, pp. 33-4)

20) 安秉台(앞의 논문, p. 20), 孟澤永(漢詩古代歌謠考, 淸州教育大 論文集 第14輯, p. 20) 그외.

21) 朴智弘(앞의 논문), 邊德珍(앞의 논문), 김창룡(앞의 논문) 그외.

이 노래는 형식에 있어서는 詩經등에 보이는 중국의 가요의 형식과 비슷하나 완전히 중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첫째, 이 노래에 반복이 많은 점이다. 제1행에서는 ‘龜’와 ‘何’가 각각 반복되어 있다. 제2, 제3행에서는 ‘現’과 ‘也’가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也’는 또 제4행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모두 세 번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중국의 한시의 경우 한 작품 속에 같은 자를 그다지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노래에 보이는 글자의 반복적 사용은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둘째, 제1행에 사용되어 있는 ‘龜何’의 문제이다.

‘龜’의 의미와 독음에 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何’를 호격으로 보는 데는 연구자들간에 異見이 없는 듯하다. ‘何’는 한시에서 ‘乎’에 대응되어 호격으로 사용되는 일도 있지만 수로부인조에 들어 있는 海歌에 “龜乎龜乎”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지가에서의 ‘何’는 중국의 한문식 표기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下’와 함께 고대의 존칭 호격 ‘하’를 音借 표기한 것이라 보아진다.

셋째, “首其現也”의 문제이다. 이것은 올바른 한문식의 문장이라면 “現其首也”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치법에 의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짧은 이 노래에서는 역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노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넷째, 제3행의 “若不現也”이다. 이것만 보아서는 한문으로서의 부자연스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의 한국어 어순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若現不也”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若不現也”는 구지가가 한역시임을 입증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노래는 상대의 것이다. 상대의 어순이 현대와는 다른 점을 생각하면 이것 역시 우리말의 어순에 의해 노래를 표기한 것이라 보아진다.

이 노래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락국기를 쓴 金官知州事나 삼국유사의 찬자가 경상도 사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즉 오늘날의 경상도 방언에서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가 동사의 뒤가 아니라 앞에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국유사 균여전에 실려 있는 노래에 부정의 부사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동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다.

吾盼不喻慙盼伊賜等 : 獻花歌
 秋察尸不冬爾屋支隨米 : 怨歌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 隨喜功德歌
 善芽毛等長乙隱 : 請轉法輪歌
 佛影不冬應爲賜下呂 : 請佛住世歌
 他道不冬斜良只行齊 : 常隨佛學歌
 不冬萎玉內手留叱等耶 : 恒順衆生歌

이들 작품의 예로 보아 부정의 부사에는 ‘不冬’·‘毛等’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若不現也”의 ‘不’도 ‘不冬’과 같은 용법의 것으로 보고 싶다. 다만 여기에서 단순히 ‘不’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 작품이 무척 짧으므로 한자의 훈을 사용해도 음울과 독음에 틀릴 염려가 없었으므로 이같이 표기한 것이 아닐까.

제5행의 “燔灼而喫也”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언뜻 보아서는 중국의 詩經의 노래처럼 보인다. 완전한 향찰식 표기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우리 식의 언어 사용이 보이므로 한시라기 보다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다른 노래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음훈을 차용하여 표기한 노래로 봄이 옳을까 한다. 가락국 신화에 들어 있어 연구자들에 의해 신화와 밀착된 원시가요라 생각되어진 구지가는 원래부터 신화와 함께 결합되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락국 신화가 정리 기록되는 단계에서 삽입되어진 독립가요이며 또 향찰식 표기법이 부분적으로 보이므로 이 작품은 향가의 민요계의 작품 범주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II. 結

이상으로 龜旨歌의 삽입가요성에 대해 논해 보았는데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 이전에 이미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등에는 노래가 전연 삽입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가락국기 이전의 어떠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가락국 신화에만 노래가 삽입되어

있어 독특한 양식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 신화가 기록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그 외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신화가 단순하고 소박한 곰토텐신앙이나 알신앙을 비롯한 원시신앙을 별다른 윤색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가락국 신화는 수로왕의 수도건설이나 결혼 부분에 있어서 불교적 윤색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서술이나 묘사도 한문 문식이 두드러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삼국유사 전체를 통해서 ‘喫·食’자의 용례를 살펴보면 ‘먹는다’는 뜻에 모두 ‘食’자가 사용되어 있으나 구지가와 海歌의 경우에만은 ‘喫’자가 사용되어 있다. ‘喫’자가 중국에서 속어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宋代에 이르러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구전되던 민간의 노래를 산문 기록물에 삽입하여 문자화하는 단계에서 노래의 그러한 특성을 살려 속어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보아진다. 구지가 제 4행의 “燔灼而喫也”에 ‘喫’자가 사용된 것은 구지가가 문자로 정착된 것이 비교적 후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구지가는 언제 생성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껍질 속에 머리를 넣고 있는 거북의 목을 내게 하려고 아이들이 부른 동요였던 것이 수로왕을 맞기 위한 의식이 배풀어진 구지봉이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쉽게 신화 속에 삽입되어 거북이 머리를 내밀듯 왕을 내려 달라는 의미로 무리없이 전환되어 수로왕을 탄생시키는 呪歌로 변이되었다고 보아진다.

넷째, 수로부인조에 들어 있는 해가는 구지가와 동계의 것인데 수로부인조에 삽입되게 된 것은 수로왕의 수로와 수로부인의 이름의 음이 같으므로 이에 이끌려 삼국유사의 찬자가 설화 속에 삽입시킨 것이라고 보고 싶다.

다섯째, 이 작품에는 향찰식의 표기가 보이므로 한시가 아니라 하겠다.

향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의 문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